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趙明哲
(고려대학교 교수)

- 머 리 말
- 청일전쟁 후의 대륙정책
- 의화단사건과 만주문제
- 영일동맹과 만주전략
- 참모본부의 대러시아 개전론
- 참모본부의 만주전략
- 맺 음 말

1. 머 리 말

일본 육군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해마다 공식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작성된 이른바 「年度作戰計劃」은 통수권자인 천황에게 상소되고 그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정식의 연도작전계획은 사단과 하급부대에 전달되어 작전계획의 기본방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도작전계획만을 분석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작성되는 과

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시 만주가 일본의 작전대상도 아니었고 러시아가 정식의 가상적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연도작전계획을 통해서 일본 육군의 만주에 대한 군사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일본 육군의 「연도작전계획」은 러일전쟁 시기까지 본토방어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¹⁾

따라서 여기서는 육군의 최고지휘부나 핵심장교들이 갖고 있던 만주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이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 육군의 만주전략이 구체화되어 갔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전략과 군사전략은 처음에는 관계부처 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참모본부나 외무성, 정부 수뇌부의 공통된 의견으로 집약되어 간다. 물론 이렇게 통일된 의견들은 정부의 대외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 군부와 정치가, 외교관료 사이에 정책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가서 지식인과 언론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정책적 공조를 밝히는 일은 일본의 대외팽창구조를 구명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2. 청일전쟁 후의 대륙정책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이 1890년 국회에서 단언했듯이 어느 국가에게도

1) 谷壽夫, 『機密日露戰史』, 原書房, 1966, 94쪽. 육군의 공식적인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高田甲子太郎의 「國防方針制定以前の陸軍年度作戰計劃」(『軍事史學』20-1, 1984)를 참조.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였다.²⁾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꺾었지만 삼국간섭으로 기세가 꺾인 후 한국에서의 주도권은 오히려 러시아로 넘어가고 말았다.

더욱이 일본이 중국에 반환한 요동반도의 여순항을 러시아가 조차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은 한층 고조되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만주가 일본의 대륙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사실 청일전쟁후 삼국간섭을 주도한 열강과 대치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일본으로서서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한반도를 통한 대륙진출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국경을 한국과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고 가능하면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도 강했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의 새로운 팽창논리로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南進論’이었다. 남진론은 한마디로 청일전쟁의 결과로 획득한 최초의 식민지인 대만을 십분 활용하여 일본의 대외팽창을 실현하지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남진론은 지식인과 식자들을 통해 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실제로 대만 식민지통치에 관련된 관료, 군인 등은 대만을 통해 남쪽에서부터 중국을 공략해야 한다는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국수주의 지식인 구가 가츠난(陸羯南)은 청일전쟁 시기의 신문에 「外政策」을 연재하여 앞으로 일본이 취해야 할 외교전략을 제시하였다.³⁾ 이것은 아마도 초기의 남진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방이 (일본)제국이 진출해야 할 방향이라면 이번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한 강대국과 접촉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은 영국의 세력하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남방은 특히 통상

2) 야마가타는 국회 개설을 기념하는 시정연설에서 한국문제를 거론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은 일본의 ‘利益線’으로서 어느 나라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

3) 『陸羯南全集』 4卷, 「外政策」, みすず書房, 1970, 636-647쪽.

항해에 있어서 영국의 전체적인 힘이 미치는 곳이 아닌가. 때문에 (일본) 제국은 조선에 있어서 러시아와 교섭을 피할 수 없듯이 중국에 있어서는 영국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 (일본)제국의 당연한 방침에 따르자면 러시아와의 교섭은 방어적으로 하고 영국과의 접촉은 진취적으로 한다. 만약 이 접촉을 피하려 한다면 남방으로 향한 진취주의를 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⁴⁾

지금 일본제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동양북부에 있어서는 방어자이고 동양남부에 있어서는 진취자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의 충돌에 대해서는 방조자(幫助者)가 아니라 調和者가 된다. 이것이 (일본)제국의 임무다. 이것으로써 대조선정책을 세워야 하고 대중국정책을 세우고 또 대유럽정책을 세워야 한다.⁵⁾

구가는 북쪽은 방어하고 진출은 남쪽으로 해야 한다는 남방정책을 일본의 대외정책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 중에는 일본 팽창의 제일 목표인 한반도가 남방정책에 종속된 문제로 분류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동시에 구가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영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지식인의 눈에도 러시아와의 정면대립이 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비슷한 시기에 원로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도 수상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디 대만을 신속히 점령하는 작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계작전으로도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간청하고 있다.⁶⁾ 마쓰가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을 총지휘하고 있던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에게도 의견서를 보내 대만 점령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4) 위의 책, 643-644쪽.

5) 위의 책, 644쪽.

6) 『伊藤博文關係文書』 7권, 155-156쪽.

우리가 대만을 영구히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각하가 잘 아시는 바입니다. 최근 구미의 신문조차 청국 공격의 목적은 대만 점령에 있다고 평할 정도입니다. 대만은 우리의 남쪽 관문으로서 남방으로 대일본제국의 판도를 팽창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북을 지키고 남을 공략하는 방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식인들이 일찍이 간파한 바로서 대만은 마침 그 첫 번째 발판으로써 남쪽의 제반도 및 남양의 제 군도에 미칠 수 있는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무역, 식민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령했을 때 이처럼 이익이 크기 때문에 타국이 점령한다면 우리나라에 대단히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⁷⁾

마쓰가타는 일본의 팽창방향을 남방으로 못박고 그 팽창의 첫 번째 대상으로 대만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마쓰가타는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선점하지 못할 경우 일본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이미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 주창된 ‘북을 지키고 남을 공략하는 방침’ 즉 북수남진론(北守南進論)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마쓰가타가 의견서 뒷부분에 “이토 백작도 소생의 의견에 이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동감하고 대본영에 도착하는 대로 이 주장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⁸⁾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대외 전략이 정치원로들과 군관계자, 지식인 등과의 왕성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청일전쟁 중에 활발하게 논의된 북수남진론은 1896년 6월 육군 중장으로 제2대 대만총독에 임명된 가쓰라 타로(桂太郎)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가쓰라는 현지에 부임하기 전 3주에 걸쳐 대만의 주변을 시찰하면서 동행한 해군대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 많은 의견교환을 나누고 돌아와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7) 『公爵松方正義傳』坤卷, 548-549쪽.

8) 위의 책, 551-552쪽.

(대만은) 澎湖 열도를 사이에 두고 남청의 연안과 마주보고 있고 그것도 요항 廈門과의 교류를 통해 주변지역과 관계를 유지하며, 남으로는 남양제도에 연결되어 있어 멀리 남쪽 바다를 제압하는 형세는 마치 동해(원문에는 日本海)에서 쓰시마를 사이에 두고 조선반도와 대치하면서 부산항과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제압하는 형세를 방불케 한다.⁹⁾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해를 제압하고 남청의 연안에 접근하여 남양의 제도와 교류하고 대만/펑호의 지역적 이점을 이용하여 크게 국세를 신장시키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백년의 회한으로 남을 것이다.¹⁰⁾

가쓰라 총독은 일본이 쓰시마를 거쳐 부산을 장악함으로써 한반도를 제압하는 것과 같은 지형학적 기능을 대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쓰라는 대만의 전략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의 대외팽창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쓰라의 대만중심 팽창논리는 대만 건너편의 복건성에 대한 공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는 일본의 세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남청의 복건지역을 우리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우리 세력을 부식/양성하고자 한다면 하문항과 긴밀한 교류를 시작하고 복건지역에 은밀한 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¹¹⁾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었다. 특히 가쓰라는 복건성 중에서도 하문항에 주목하고 있다.

남청의 각 항구 중에서 하문항은 가까이에 펑호제도가 있고 대만과 마주보고 있어 큰 배가 아니더라도 수 시간 정도의 항해로 도착할 수 있다. 이전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만의 화물은 우선 하문항에 집결하여 사망으로 수출되는 형태를 보여 왔다. 때문에 지금 하문항은 우리의 문화와 상품 유입의 새로운 관문으로서 우리의 정치/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역이

9) 德富蘇奉, 『公爵桂太郎傳』 乾卷, 故桂太郎記念事業會, 1916, 707-708쪽.

10) 위의 책, 708쪽.

11) 위의 책, 709쪽.

다. 따라서 북간지역에 우리의 은밀한 세력을 부식/양성하고 후일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은 정말로 무리한 작업이 아니다.¹²⁾

가쓰라는 대만을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남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그는 조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외로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조선반도에 있는 우리 세력의 사정을 보면 때때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의 세력이 조선에 잠입한 수가 실로 엄청나 만약 조선이 와해/붕괴되어 두세 열강에게 병탄될 지경에 놓이더라도 진출한 우리 세력의 실력을 고려해 볼 때, 열강이 쉽게 마수를 드리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세력을 부식/양성한 것은 원래 오래 세월의 정책으로 얻어진 것으로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니다.¹³⁾

가쓰라는 조선에 진출한 일본세력의 영향력에 대해 상당한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조선은 현상유지 정도로 충분하다는 견해다. 조선을 현재 상태로 묶어 둔 채 대만에 주력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북수남진론이라 할 수 있다. 가쓰라도 스스로 북수남진론의 입장에 서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요컨대 우리 일본제국은 앞의 동해의 안전을 유지하고 조선반도를 제압하여 블라디보스토크항의 목을 조여 왔지만 전후(청일전쟁후) 오늘의 정세는 일변하여 이른바 북수남진의 정책에 따라 멀리 중국해로 나아가 그 연안 각지를 목표로 진취적인 정책을 취하는 데 있다.¹⁴⁾

12) 위의 책, 710쪽.

13) 위의 책, 711쪽.

14) 위의 책, 712-713쪽.

가쓰라는 지금까지 조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본의 팽창정책이 이제는 남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복수남진론에서 말하는 남방이란 구체적으로 대만의 남쪽이 아니라 중국 남부의 해안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대만총독으로 임명된 자들은 조선보다는 대만 경영에 주력해야 하고 역설했다. 1898년 2월, 제4대 대만총독으로 부임한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 육군 중장도 가쓰라의 복수남진론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1899년 6월에 작성된 고다마 총독의 「대만통치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 一. 남진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청국의 대안(대만과 마주보는 중국 연안)과 남양의 통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一. 본 섬의 주민을 통치하는 효과를 온전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인 복건성 특히 하문항의 민심에 주의하여 그 동정을 살피고 반사적으로 섬 주민의 안전을 꾀하여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침을 취해야 한다.¹⁵⁾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만에 대한 시설투자에는 대만 방위와 복건성 방면으로의 군사행동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¹⁶⁾ 실제로 고다마 총독은 대안계(對岸係)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복건성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시켰다. 복건성 성도인 복주(福州)에서 신문발행을 지원하고 대만은행의 지점을 설치하는 한편, 복건성 주요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일본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노력했다.¹⁷⁾

복수남진론은 러일전쟁 후가 되면 해군의 군비증강을 위한 논리로써 애용되기 때문에 육군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하게 되지만, 청일전쟁후 식민지

15) 鶴見佑輔, 『後藤新平2』, 後藤新平傳記編纂會, 1937년 복간판, 勁草書房, 1965, 418쪽.

16)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南窓社, 1996, 29쪽.

17) 宿利重一, 『兒玉源太郎』, 對胸舎, 1938, 342-345쪽.

대만을 중심으로 팽창을 구상할 시기에는 육군의 지도층도 복수남진론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대만총독은 초대 가바야마만 사쓰마 출신의 해군이었지 그 뒤로는 전부 조슈 출신의 육군이었음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복수남진론자들이었다. 오히려 복수남진론은 가쓰라, 고다마 등 육군의 수뇌들에 의해 강하게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화단사건이 발발할 때까지 일본의 대외팽창의 논리는 러시아라는 강력한 저항체에 부딪혀 전통적으로 한국을 중시하는 북진론과 대만을 중시하는 남진론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화단사건을 빌미로 러시아가 만주를 군사점령하자 일본은 그 상황을 한국지배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즉,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할 경우 일본의 한국 지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일본 정부에 팽배했다. 여기서 만주문제는 일본이 피할 수 없는 현안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3. 의화단사건과 만주문제

하지만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사건이 일어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여건도 급변하였다. 의화단세력의 확대로 중국이 일시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열강의 외교관이 북경에 고립되자 전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렸다. 고립된 외교관과 자국민을 구출하는데 급급한 다른 열강에 비해 러시아는 만주에 투자한 철도와 시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일거에 만주를 점령해 버렸다.¹⁸⁾ 러시아의 만주 점령은 장래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일본의 수뇌부는 한국과 만주를 사이에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국경을 직접 맞대는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었다. 이렇게 한반도와 연계해서 새로 부각된 만주문제를 어떻게 처

18) 日本外務省(編), 『日露交渉史』, 原書房, 1969, 312쪽.

리할 것인가가 일본의 새로운 외교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은 이전과 같이 대만을 축으로 한 대륙정책을 선호했다. 육군의 대부이자 의화단사건 당시 수상이었던 야마가타도 중국이 혼란에 빠지고 세계의 이목이 의화단세력에게 포위된 북경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일본은 서둘러 중국의 남부 즉 대만 건너편의 복건성에 대한 공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육군과 해군에 의해 실제 군사행동으로 나타났다.

북경이 함락되고 불과 10일 뒤에 일어난 일본군의 하문항 점령사건은 대만을 중심으로 한 복수남진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문항에 있는 일본인 철에 화재가 발생하자 준비하고 있던 일본 해군과 육군은 자국민 보호라는 구실로 하문에 상륙하였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 서구열강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자 일본 정부는 육·해군과 대만총독부의 독주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했으며, 하문 상륙부대는 곧바로 철수하고 말았다.

하지만 하문출병사건은 정부차원에서 준비되었던 일이었고 천황의 재가도 받아놓은 상태였다.¹⁹⁾ 하문출병사건이 일어나기 수일 전인 8월 20일, 수상 야마가타도 의화단 사건의 사후대책을 밝힌 의견서에서 “이번 기회를 틈타 조선을 점령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은 러·불·독과 전쟁을 하자는 것과 같다고 일축하면서 일본은 주변정세를 고려하여 ‘복수남진의 國是’를 취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²⁰⁾ 또 국시의 성취를 위해서는 복건성과 절강성의 요충지를 점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각국이 공동으로 중국에서 사냥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남쪽의 토

19) 小林道彦, 앞의 책, 38쪽.

20) 大山樺,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6, 261-263쪽.

끼를 쫓고 이것을 잡은 후에 다시 북방의 남은 토끼를 쫓아도 늦지 않는다. 일찍이 요동을 반환하고 위해위를 포기하고 이어서 러일협상(야마가타·로마노프 협정)을 성립시킨 것은 깊이 동아의 대세를 살피고 국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북수남진의 국시를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남문의 경영을 온전하게 하고 상공업을 발달시킴은 북진·절강의 요지를 점거하는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일이 잘 진행되고 때가 적당한 지금에야 말할 것도 없다.²¹⁾

수상인 야마가타조차 당시의 상황을 대외팽창의 기회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팽창의 논리는 청일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대만을 축으로 한 북수남진론이었다. 대만총독부의 강경한 북수남진론자들은 하문점령을 끝까지 고집하며 철병에 반대했으나 열강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토 히로부미 등에 의해 저지되었다.²²⁾ 육군의 무모한 군사행동이 다년간 다져온 대외정책의 기초를 뿌리부터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일본이 남진론에 유난히 집착했던 이유는 한국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한국문제의 비중이 작아서가 아니라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문제를 러·일간에 민감한 외교적 현안으로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지 한국문제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계심은 정부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왔다. 육군의 대부 야마가타만 해도 이미 1890년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계획이 발표되자 강한 어조로 러시아 경계론을 주장하였고 청일전쟁이 종료되기 직전에도 러시아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증강책을 내놓기도 했다.²³⁾ 실제로 일본정부는 청일전쟁 후 정부예산의 40% 전후를 군사비에 쏟아 부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을 러시아와 양분하는 정

21) 위의 책, 262쪽.

22) 『伊藤博文秘録』, 原書房, 1982년 복간본, 133쪽.

23) 大山樺, 앞의 책, 196-197쪽, 230-231쪽.

도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 양분론의 입장에 선 정치가 중에서 흔히 이토 히로부미가 이야기되지만 야마가타도 「滿韓交換」을 달성할 수 있다면 최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분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²⁴⁾

어쨌든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한국문제와 만주문제는 일본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치원로들과는 달리 일부 젊은 외교관료들은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좀더 노골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의화단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자신의 의견을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상신하였다.

북건성 전체의 정복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어서는 단지 주요 항만을 점거하는데 그치고 다른 방면에서 우리의 희망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방면이란 즉 조선반도를 이르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평양·원산 이북에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을 러시아 측에 제의할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이 적절하다면 그들도 역시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지형으로나 병력으로나 지금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본]제국은 반드시 위와 같은 호기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서히 입지를 굳힐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지. 예를 들어 우선 군함을 인천항에 상시로 배치하여 발해만과의 연락을 취하고 (만주 및 상해의 전선은 언제 단절될지 알 수 없고 또 그러한 경우에 천진과 인천 사이에 첩보선을 왕복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됨) 나아가 완전히 우리의 병참근거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이목을 끌지 않고 단숨에 서울 이남은 자연히 우리세력권으로 귀속되리라고 사료된다.²⁵⁾(인용문의 괄호는 원문의 괄호)

24) 위의 책, 261-263쪽.

25) 外務省(編), 『日本外交文書』北清事變中, 379-380쪽.

7월 5일 보낸 이 비밀문서는 일본 정부가 출병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작성된 하야시의 의견서이다. 일본의 외교관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국의 국익을 챙기는데 얼마나 민감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하야시는 남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일본이 한국문제에 집중할 시기라고 역설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이 인천을 선점하여 러시아와 적절한 선에서 한국을 양분하자는 한국분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 공사 하야시의 과격한 ‘인천점거론’은 일본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물론 하야시의 설득작업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군사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점이 일본정부를 어렵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가 없자 하야시는 두세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한국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²⁶⁾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야시 공사의 한국 요충지 일부 점령론이 개인의 독자적인 작품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 표출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하야시 공사의 공적으로 잘 알려진 마산포 토지매입사건도 사실은 사전에 참모본부로부터 러시아의 동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899년 하야시 공사가 한국에 부임하기 직전 참모본부의 관계자들로부터 러시아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찾고 있다는 사실과 러시아가 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구가 마산포라는 정보를 얻었다. 이처럼 사전에 참모본부의 정확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야시 공사는 러시아가 마산포를 부동산으로 삼으려는 기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²⁷⁾ 군이 직접 외교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정보를 매

26) 7월 19일 기밀문서. “본관이 살핀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만주에 대군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폭동진압은 러시아에게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 결과는 아마도 만주 점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정에 이를 경우에 러시아는 이상과 같은 위험한 국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것이다. 때문에 [일본]제국정부는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이익을 엄호하고 고수하는 계획에 대해 전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위의 책, 384-385쪽).

7월 23일 기밀문서 참조(위의 책, 389-391쪽).

27) 상세한 내용은 林權助, 『わが七十年を語る』, 第一書房, 1935, 118-137쪽 참조.

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군이 외무성에 앞서서 의화단 문제에 적극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참모본부의 정보활동은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와 같은 대외 강경론파의 재야단체들과 연계를 이루면서 중국 각지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육군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직접 개입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²⁸⁾

의화단사건 당시 일본의 육군은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참모본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던 寺内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 참모차장의 일기에는 테라우치가 의화단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팔개국연합군에 일본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²⁹⁾ 테라우치가 육군을 장악하고 정계를 양분하고 있는 초슈파벌(長州派閥)의 핵심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참모차장이라는 직책을 벗어난 행동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의화단세력이 진압되고 사후처리로 각국이 분주하던 1901년 4월, 러시아에 대해 강경론을 주장하는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 외무대신이 오야마

28) “我參謀本部は中央支那に於て張之洞との關係は甚親密にして張の昨今の動作は一我參謀本部の方針に遵ふもの如し。然るに劉坤一には左の關係なく手の付け難き有様にて寧ろ餘の交際最も深き位なれば同人に對しては同文會の手によるの外なしとの考もある模様なり(중략) 而して我青木中佐は職を辭して今や袁の幕賓たり宋慶の軍にも日本人の幕賓ありといへり。” 近衛篤磨日記刊行會, 『近衛篤磨日記』第三卷, 鹿島研究所出版會, 1968, 21-22쪽.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육군은 의화단사건 이전부터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마산포 토지매수사건의 경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森山茂徳의 『近代日韓關係史研究』의 제2장과 林權助의 『わが七十年を語る』(第一書房, 1935, 118-136쪽) 등을 참조.

29) 1900년 5월 30일, “出務ス一昨日來清國ニ於テ義和團暴發シ鐵道電信ノ破壊ヲ爲セリ各國護衛ノ爲メ兵ヲ招致セリ”(山本四郎(編), 『寺内正毅日記』, 京都女子大學, 1981)라고 테라우치의 일기에 의화단사건의 기사가 처음으로 출현한 이래로 그 후 2개 사단의 동원이 결정(6월 18일, 山本四郎(編), 『寺内關係文書首相以前』, 京都女子大學, 1984, 55쪽)되고 제5사단의 동원명령(6월 25일, 『寺内關係文書首相以前』, 56쪽)이 나올 때까지 테라우치 참모차장은 내각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뿐이었다.

이와오(大山巖) 참모총장에게 만주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오야마 참모총장은 러시아와 무력충돌을 벌이는 것은 “용병상 이롭지 못하다”라는 군사적 견해만을 밝히고 정치적 견해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³⁰⁾ 이때만 해도 군의 지도층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정보교환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 육군이 만주에 대해 군사전략을 검토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군사전략을 구상하면서 그 안에 만주에 대한 작전이 함께 다루어진 것 같다.³¹⁾ 참모본부는 당시 동북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병력을 보병 48개 대대(약 4만 8,000명), 기병 72개 중대, 포병 20개 중대로 판단하고, 러시아군의 후방보급 능력을 감안할 때, 20만에서 24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산정하고 있었다.³²⁾ 참모본부는 러시아군의 배치와 동원능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러시아 작전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제1안: 2개 사단으로 여순(旅順)을 공략한다.

제2안: 약 10개 사단으로 만주방면에서 하얼빈 방면으로 작전을 전개한다.

제3안: 북한지방 또는 연해주 아니면 이 양방면으로 상륙하여 니코리스크를 향하여 작전을 전개한다.³³⁾

30) 加藤伯傳記編纂委員會, 『加藤高明』上卷, 寶文館, 1929, 444쪽.

31) “참모본부가 대러시아 작전계획에 진지하게 검토한 것은 明治 33년(1900)이었다. (중략) 이것에 대해 참모본부는 아직 확정된 대러시아 작전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大本營陸軍部一(戰史叢書)』, 防衛廳戰史室(編), 朝雲新聞社, 1966, 91쪽.

『大本營陸軍部一(戰史叢書)』과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谷壽夫의 『機密日露戰史』(原書房, 1966)는 1900년을 대러시아 전략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기점으로 삼고 있다. 한편, 沼田多稼藏의 『日露陸戰新史』(芙蓉書店, 1980)는 영일동맹이 맺어진 1902년을 확으로 이전과 이후의 대러시아 전략을 구분하고 있다.

32) 沼田多稼藏, 『日露陸戰新史』, 15쪽.

33) 『大本營陸軍部一(戰史叢書)』, 91쪽.

이것은 동북아시아에 진출한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전투가능한 모든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상정한 대략적인 작전(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전목표나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작전(안)의 연계성은 분명하지 않으나, 상당히 이른 시기에 만주작전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작전(안)의 내용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러시아 작전계획의 전략적 목표는 러시아군을 격퇴한 후, 만주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야마가타 이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이 주장했듯이 “조선국은 우리의 이익선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어 우리 제국의 이익을 유지,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한국의 완전장악 즉 보호국화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³⁴⁾

중요한 것은 이 작전계획이 공식적인 절차를 경유해서 육군의 작전계획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⁵⁾ 아직은 몇몇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을 넘지 못했다. 참모본부가 러시아에 대한 작전(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못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군비의 확충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재정도 역시 올해에 들어 겨우 정리단계에 들어섰으니, 여기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일은 되도록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야마가타 수상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³⁶⁾ 대외문제에 있어서 군사전략이 정치전략(정략)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공식적인 육군의 「연도작전계획」은 러일전쟁 시기까지 본토방어 전략을 중심으로한 수세적 작전계획이었다.³⁷⁾ 이와 같이 정식으로 채택되는 작전계획은 여전히 본토방어 작전이 중심이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하는 일부 장교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대러시아 전략이

34) 『對韓政策意見書』, 大山樞(編), 앞의 책, 255쪽.

35) 『大本營陸軍部一(戰史叢書)』, 91쪽.

36) 『對韓政策意見書』, 『山縣有朋意見書』, 255쪽.

37) 谷壽夫, 앞의 책, 94쪽.

검토되고 있었다.³⁸⁾ 참고로 육군이 정규의 작전계획을 수세적 원칙에서 공세적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러일전쟁 후의 일이었다. 즉, 러일전쟁이 종결되고 오야마 참모총장이 천황에게 상소를 올림으로써 육군의 연도작전계획은 수세원칙에서 공세원칙으로 전환하였다.³⁹⁾

4. 영일동맹과 만주전략

1902년 1월 30일, 영국과 일본은 비밀리에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2월 10일에 세상에 공표하였다.⁴⁰⁾ 영일동맹은 러시아와 정면대결을 피하고 타협을 통하여 한국문제(한국의 식민지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친러노선과, 영국과 손을 잡고 정면돌파를 불사하겠다는 친영노선과의 갈등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 영일동맹 이후 일본의 대러시아 외교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하고 경직되어 갔다. 즉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가 조건 없이 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서 조금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의화단사건 당시 만주와 한국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일본 외무성의 태도가 이제는 한국의 안전하고도 완전한 지배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만주를 비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일본은 영일동맹으로 유리해진 자신의 입장을 십분 활용하여 러시아를 압박해 나갔다. 영일동맹이 사실로 드러나자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 더 이상 고압적 자세만을 고집하기 어려웠다. 결국 일본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러시아는 1902년 10월부터 3단계에 걸쳐서 만주에서 철수하겠다는 이른바 러청만주환부조약

38) 육군의 공식적인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高田甲子太郎의 「國防方針制定以前の陸軍年度作戰計劃」(『軍事史學』, 20-1, 1984)이 가장 정밀하게 검증된 연구라고 생각된다.

39) 1906년도 「陸軍作戰計劃改正に關する理由」를 참조. 陸軍省(編), 『明治軍事史』 下卷, 原書房, 1966, 1563-1564쪽.

40) 外務省(編), 『日本外交文書』 35권, 日本國際連合協會, 1957, 19-20쪽.

을 중국과 맺고 말았다.

이처럼 영일동맹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영일동맹이 갖고 있던 군사동맹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영일동맹에는 일본과 외국이 전쟁을 벌일 경우 제3국이 일본의 상대를 지원하면 영국은 반드시 일본측에 참전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⁴¹⁾ 이 규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1902년 7월 7일과 8일, 영국과 일본의 군사관계자들은 런던에서 비밀리에 회합을 열고 군사적 협력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비밀군사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서는 만주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는가.

일본측으로부터는 후쿠시마 안세이(福島安正; 참모본부2부장) 소장, 이주인 고로(伊集院五郎) 해군소장, 다마리 신겐(玉利親賢; 주영공사관부무관) 해군대좌, 우츠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 주영공사관부무관) 소좌, 다카라베 다케시(財部彪; 상비함대참모) 해군소좌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영국이 참전하게 되는 경우(제3국이 러시아측에 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결의되었다. 그 중에서 육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은 3주 안에 정예 28만의 야전군 동원이 가능하다. 영국의 해외동원능력은 3군단 12만명, 장시간 준비할 경우에는 추가로 10만명이 가능하다.
2. 러시아는 우선 42일 이내에 만주에 12만명을 보낼 수 있고 신속히 증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차 집중이 이루어지기 전에 초기에 결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영국 1개 군단의 급파를 희망한다.
3. 영국의 프랑스군에 대한 대책은 (후략).⁴²⁾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이 28만명, 영국이 22만명의 병

41) 영일동맹의 조약에는 軍事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맹조인자의 의견으로서 군사에 관한 내용이 첨가되었다(『위의 책, 2쪽).

42) 防衛廳(소장), 『日英兩國軍事關係書類』.

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러시아에 대한 예측은 비교적 정확한 첩보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예군 28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13개 사단을 전시체제로 확대 재편성해도 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비밀회담에서까지 양국의 관계자들이 서로 과장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을 보아서도 이 회담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군관계자들이 영일동맹의 규정대로 영국이 참전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일 양국의 관계자들은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경우에 전투가 주로 만주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동시에 만주로의 군사력 집중이 용이한 러시아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전쟁초기에 기선을 제압하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시기 정부의 대륙정책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만주는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위의 비밀회담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참모본부는 영일동맹 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1900년에 비해 1902년에 두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일본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참모본부의 인사도 대폭 개편되었다. 참모본부의 축인 6명의 부장 중에서 3명이 교체되었다. 새로 임명된 이구치 쇼고(井口省吾) 총무부장, 작전담당인 마쓰가와 도시타네(松川敏胤) 제1부장, 오시마 겐이치(大島健一) 제4부장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주전론자들이었다. 당시 참모본부는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참모총장이 사망한 뒤에 참모본부의 정비에 힘써 왔던 다무라 이요조(田村怡興造) 총무부장이 참모차장으로 승진하여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참모총장 밑에서 실질적으로 참모본부를 지휘하게 되었다.

여기에 4년간의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소좌가 참모본부에 복귀한 것도 대러시아 작전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활력소가 되었다. 다나카 소좌는 조슈 출신으로 야마가타, 가쓰라, 테라우치 등 초슈벌을 잇는 적장자의 일인이었다.

당시 참모본부의 상황을 부원이었던 사토 고지로(佐藤鋼次郎)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메이지 35년(1902)의 여름이었다. 참모본부 제1부의 부원 다나카(田中) 소좌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머지않아 러일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군의 극동에 대한 집중계획을 종류별로 상정하고 그것에 대한 아군의 작전계획을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바빠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당시, 여름에는 정오에 퇴근들을 했기 때문에 넓은 참모본부에서 고생스럽게 남아서 일을 하고 있던 자는 다나카 소좌와 나, 두세 명에 지나지 않았다. 다나카 소좌와는 여러 차례 대러시아 작전을 함께 연구하였는데, 여순(旅順) 공격에 대해서는 다나카 소좌는 내 의견에 찬성하였다.⁴³⁾

이처럼 대러시아에 대한 군사작전은 참모본부 안에서도 소수의 부원들에 의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나카 소좌가 참모본부의 마쓰가와 제1부장 밑에서 러시아 반장을 담당하면서 대러시아 전략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⁴⁴⁾ 이 때 검토된 대러시아 작전 계획은 해군이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었다.⁴⁵⁾ 먼저 해군이 황해와 동해를 제압했을 경우, 육군은 주작

43) 佐藤鋼次郎, 『旅順を落とすまで』, あけぼの社, 1924, 52-53쪽.

44) 실제로 田中 소좌는 참모본부의 松川 제1부장 밑에서 러시아 반장을 담당하면서 중견층의 대러시아 전략의 연구를 리드하고 있었다(田崎末松, 『評傳田中義一』 上卷, 平和戰略綜合研究所, 1981, 57쪽).

45) 1902년 8월의 대러시아 작전계획안이라는 것도 다수의 관계자료들로부터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그 중에서도 역시 谷壽夫의 『機密日露戰史』와 沼田多稼藏의 『日露陸戰新史』가 가장 원사료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전을 만주에서, 부작전을 우수리 방면으로 전개하여 러시아의 야전군을 격파한다. 주작전을 위해서 5개 사단을 동원하여 평양의 입구인 남포(南浦)에 상륙시킨다. 그리고 부작전을 위해서는 2개 사단을 동원하여 동해안의 나진(羅津)에 상륙시킨다.⁴⁶⁾ 한편, 해군이 러시아 해군과의 결전을 피하여 대마도 해협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육군은 한국 남해안에 상륙하여 북상하는 작전을 취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⁴⁷⁾

만주와 시베리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에 이미 15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⁴⁸⁾에 비해서, 한국에 약간의 임시병력밖에 배치하지 않은 일본이 직접 만주로 진격해 러시아군의 주력을 격파한다는 전략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대담한 발상이었다. 이것을 후세의 연구자들도 러시아에 대한 최초의 공세적 작전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⁴⁹⁾ 물론 이러한 공세적 작전구상은 참모본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었고 일종의 연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참모본부가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만주를 주작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작전지역인 만주에 대한 내용보다 한국작전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외교방침이 전쟁과 협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상황에서 참모본부가 만주작전을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만주작전을 강하게 주장했던 중견 참모들 중에서 다나카 소좌는 1902년 겨울 「隨感錄」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무라(田村) 참모본부 차장에게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다나카의 만주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잘 드러나 있다.

(전략)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장래에 예기되는 우리의 전략상 목표는 어

46) 沼田多稼藏, 앞의 책, 16-17쪽.

47) 위의 책, 16-17쪽.

48) 防衛廳(소장), 「日英兩國軍事關係書類」. 물론, 러시아군에는 상당수의 후비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수행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49) 谷壽夫, 앞의 책, 94쪽.

다서 찾아야 할 것인가. (중략) 반드시 그 목표는 가까운 극동에서 찾아야 하고 그 지점과 방향은 적[러시아]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입힐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안 된다. (중략) 환언하자면, 동청철도(東清鐵道)는 그들의 극동의 동맥으로서 그 일부의 차단은 전 생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때문에 우리의 작전의 목적은 우선 동청철도를 파괴함과 동시에 여순(旅順)과 대련만(大連灣)을 괴멸시키고 될 수 있으면 북진하여 하얼빈을 점령하여 동서의 교통을 차단함에 있다.⁵⁰⁾

다나카 소좌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손해와 고통을 입힐 수 있는 곳”을 만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만주에 부설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교통로를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즉 육상교통로의 핵심인 동청철도의 차단과 해상교통의 근거지인 여순항의 파괴야말로 전세를 결정짓는 요소로 보았다. 물론, 다나카 소좌는 한국에서의 작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반복적으로 만주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당시 군지도부가 만주전략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5. 참모본부의 대러시아 개전론

영일동맹의 체결후, 만주문제는 러시아와 청국 사이에 만주환부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외교전에서 일본에 패한 러시아는 굴욕적이지만 만주의 점령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철병할 것을 약속하였다.⁵¹⁾ 하지만 제2차철병의 약속기한인 1903년 4월 8일이 되어도 러시아군은 전혀 퇴각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을 일본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50) 『隨感錄』, 『田中義一傳記』上卷, 188-192쪽.

51) 제1기의 철병기한은 1902년 10월 8일로 러시아는 약속대로 실행했다. 제2기의 철병은 盛京省의 잔여부대와 吉林省의 부대가 철퇴하는 것이었다.

4월21일, 정부의 수뇌와 원로들은 교토의 무린암(無隣庵)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⁵²⁾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일찍부터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지만,⁵³⁾ 만주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기회가 있으면 한국까지 세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러시아가 약속된 철병을 이행하지 않자 가쓰라 수상은 정치원로들과 타개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가쓰라 수상은 만주문제와 한국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열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조선을 두고 러·일 양국이 각자의 권리를 다투기 때문이니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다. 하나의 상품을 두고 두 명의 구매자가 나섰다면, 그 의사를 전부 관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이번 만주와 한국 양국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국에 대해 충분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 교환으로써 만주에 있어서는 그들(러시아)의 경영의 단서가 되는 범위에 한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양보를 해, 다년간의 난제를 일시에 해결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먼저 선결문제로서 한국은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주장하고자 하면 전쟁이라도 피할 수 없다. 또 이 요구를 러시아에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⁵⁴⁾

가쓰라 수상은 하나의 물건을 놓고 둘이 경쟁하는 것은 싸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주를 포함시켜 두 개의 물건(한국

52) 『明治軍事史』 下卷, 1238쪽.

53) 1890년 11월, 山縣 수상이 의회의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을 일본의 「利益線」이라고 규정 한 이래로 이른바 山縣의 의견서에 「國是」라는 표현으로 빈번하게 출현하는 명제이기도 하다.

54) 『明治軍事史』 下卷, 1240쪽.

과 만주)을 둘로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쓰라 수상의 논지는 종래의 전형적인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 그대로였다. 다만, 만한교환론은 두 개의 물건(한국과 만주)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동의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논리였다.

가쓰라 수상은 일본이 한국만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면 만주는 러시아가 차지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만한교환론’이 실현되어 일본이 한국을,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하더라도 양쪽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면 만주의 러시아 세력은 언제든 측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남북으로 분단될 가능성이 있었다. 반대로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하면 한반도는 요동반도와 블라디보스톡 양쪽으로부터의 협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종종 한반도를 양분하여 러시아와 나누자는 타협안이 등장하곤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은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러시아와 담판을 개시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무린암 회의에서는 ‘만한교환론’에 입각한 협상원칙을 확정하였다.

1. 러시아가 만주환부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만주에서 철병하지 않을 때는 우리 쪽에서 나아가 러시아에 항의를 할 것.
2. 만주문제를 계기로 삼아 러시아와 교섭을 개시하여 조선문제를 해결할 것.
3.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로 하여금 우리의 우월권을 인정하도록 하여 조금도 러시아에 양보하지 말 것.
4. 만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 러시아의 우월권을 인정해 주어 이것을 계기로 조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⁵⁵⁾

55) 春畝公追頌會(編), 『伊藤博文傳』 下卷, 1941, 584쪽.

일본 외무성은 위의 협상원칙에 입각하여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상호 만족스런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무라 주타로 외상을 중심으로한 외교라인이 일본이 한국을 안전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만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무라가 고집한 협상논리는 ‘만한교환론’보다 훨씬 강경한 ‘만한불가분론’이었다. 즉 일본이 한국을 안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만주에 위협적인 세력이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논리였다.

한편, 만주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강경론에 밀려서 한국을 양보하고 만주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골육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황제 측근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여순항을 요새화하는 등 만주지배를 강화하고자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만주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협상원칙을 세우고 있을 시기에 육군의 대러시아 군사전략은 대체로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고 있었다. 일례로 1903년 3월 7일, 테라우치 육군대신과 마쓰카와 참모본부 제1부장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육군대신은 “해외정벌에 있어서 러시아의 군대가 한국 내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만족할 만하다. 참모본부는 이러한 근본원칙을 가지고 작전을 계획한다면 나의 의견과 일치되니 이러한 요령으로 세우는 입안계획에 대해서는 군비조달을 전력으로 돕겠다”고 마쓰카와가 묻기를 “가령 러시아군이 한국 내에 한 번 발을 들여 놓았다하더라도 이를 격퇴시켜 희망하시는 대로 해 놓으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육군대신은 바로 그렇다고 했다.⁵⁶⁾

56) 谷壽夫, 앞의 책, 82쪽.

이것은 대러시아 군사전략에 대하여 육군의 지도부와 군사작전 담당관 사이에 오고간 대화로서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우선 군사전략의 기본방침이 군의 지도층으로부터 참모본부의 담당자에게 지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테라우치 육군대신은 동아시아의 러시아군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 즉 한국을 일본의 세력권 안에 확보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아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담당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쓰가와 부장은 러시아군이 한국 내에 진입했을 때 만이 무력충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작전의 수세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 시기 육군의 지도부가 견지하고 있던 군사전략에는 만주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말해 만주가 어떻게 처리되든지 한국만을 군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전략적 목표는 달성된다고 하는 발상이었다. 다나카 소좌가 일개 부원으로서 「수감록」이라는 의견서를 참모차장에게 제출한 배경에는 만주전략이 결여되어 있는 기존의 군사전략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무린암(無隣庵) 회의 다음날(4월 22일) 동경으로 돌아온 고무라 외무대신은 가쓰라 수상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 거기에는 야마모토 해군대신과 테라우치 육군대신을 포함한 4인이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일종의 외교방침과 군사전략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테라우치 육군대신은 “전쟁은 육군으로서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고 하여 육군의 부전론(不戰論)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⁵⁸⁾ 이 말은 육군으로서는 만주를 군사작전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1903년 5월 초순에 러시아가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를 점거하는

57) “우리나라의 작전은 오로지 공세적인 취지를 살려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가령 드문 경우라 하더라도 수세적 계획 또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그러한 계획은 이미 성립되어 있고 해마다 그것을 수정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본연의 공세적 계획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田中義一, 『隨感錄』, 『田中義一傳記』上卷, 168쪽).

58) 本田熊太郎, 『魂の外交』, 278-279쪽.

사건이 일어나자 참모본부는 군사적 견해를 정리하여 천황에게 제출하였다.⁵⁹⁾ 물론, 이 의견서는 오야마(大山) 참모총장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으나 원안의 작성은 참모본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던 다무라 차장의 주도로 작성되었다.⁶⁰⁾ 이구치 총무부장을 포함하여 관계부장과 부원들은 5월 10일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날 다무라 차장에게 제출하였다. 그것을 토대로 5월 12일 오야마 참모총장이 천황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거기서 오야마 참모총장은 일본이 군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⁶¹⁾ 의견서에 첨부된 별책에는 참모본부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러시아]이 만주방면으로 전력을 기울여 東三省[만주의 盛京省, 吉林省, 黑龍省]의 점령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 러시아의 행동은 상습 수단인 협박과 공갈로 제국[일본]을 위협하고 그 태도의 강약을 조정해 가며 다소의 이익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병력에 호소하여 승패를 결정지으려고 할 것이다. 현재 전략상 여건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형세를 역전시키게 되고, 또한 한국이 그들의 세력하에 놓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제국의 국방 또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제국 군비의 충실과 정돈을 빨리 꾀해야 한다.⁶²⁾

59) 陸軍省(編), 앞의 책, 1243쪽. 천황에게 의견을 올리는 것을 「上聞」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는 제출 또는 상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60) 『日露戰爭と井口省吾』, 原書房, 1994. 1903년 5월 10, 11, 12일 일기 참조.

61) 천황에게 제출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눈앞의 만주에 있어서 러시아의 행동은 각 방면으로부터 모집한 모든 정보에 드러났으니 동양의 평화 및 제국 전도의 운명에 대해 실로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때, 제국의 군비의 충실, 정돈을 꾀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급무로서 제국의 제정을 고려해서 시간을 들여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들 가운데서도 특히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책에 러시아의 행동에 관한 판단을 덧붙여 삼가 올립니다.

明治三十六年五月

參謀總長侯爵 大山 巖”

『明治三十六年五月露國行動二關スル判斷』(『井口文書及び解題1』, 『法學研究』26권 2호, 85쪽.)

62) 陸軍省(編), 앞의 책, 1243쪽. 『明治軍事史』에는 이 내용이 참모총장이 제출한 의견서의

여기서도 결론은 ‘제국 군비의 충실’이었다. 그러나 러·일 양국간의 전력 평가에 있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군비증강을 고려해 볼 때, 멀지 않아 역전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견서는 물론 군비증강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공식문서의 형태로 주전론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참모본부로부터 나왔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것을 통일된 육군의 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참모본부의 대러시아 강경론이 보다 선명하게 표출된 것은 참모본부의 부장회의에서였다. 1903년 6월 8일, 참모본부의 부장회의는 이례적으로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만주와 한국문제를 논의하였다. 거기서는 만한문제(滿韓問題)가 군사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여기서 오야마 원수는 처음으로 만한사건에 대해서 다무라(田村) 차장이하 후쿠시마(福島), 이구치(井口), 오치아이(落合), 마쓰가와(松川), 오자와(大澤), 오시마(大島) 등 각 부장의 의견을 물었다. 총무, 제1·2부장은 의견서를 지니고 회의에 들어와 이구동성으로 강경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그 요지는 전부 일치해서 단호히 병력에 호소하더라도 강경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 지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우세한 입장에서 병력을 사용할 호기는 없어지고 제국에게 불리한 시점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든가, 아니면 굴욕을 참고 견디며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이 채워지도록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구치(井口) 소장의 발언은 별도로 제시한 바와 같고 오치아이 소장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언하고, 오시마 대좌는 인종 증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고, 차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총장은 한 노인의 자격으로 개전이 불리하다는 생각을 피력

본문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井口의 관계문서를 참조해 볼 때, 첨부된 별책의 내용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 같다.

하고, 가령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얻을 수 없다는 점까지 들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각 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⁶³⁾

이 기록을 보면 1903년 6월에는 참모본부의 부장 중 상당수가 대러시아 개전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⁴⁾ 개전을 주장하는 부장들의 논거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에 전쟁을 하지 않을 경우 만주는 고사하고 한국도 차지하기 힘들다는 조건부 개전론이었다. 참모본부의 부장들 전원이 강경론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이구치 총무부장, 마쓰가와 제1부장은 사전에 의견서를 준비할 정도로 명확한 태도를 보였고, 오시마 제4부장도 궁색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전쟁불가피론을 피력하였다.⁶⁵⁾

다행히 현재 남아 있는 이구치 총무부장의 의견서 중에서 결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병하지 않는 것은 제국의 장래를 위해 한심스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불문에 붙일 수 없다.
2. 제국 장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국은 영·미 두 나라와 함께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철병을 요구하고, 또한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에 대해 확실한 보증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영·미 두 나라가 공동 대처에 수긍하지 않으면 제국은 단독으로라도 담판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3. 만일 담판이 결렬되어 러시아가 우리의 요구에 평화적 수단으로써 응하지 않을 때는 제국은 병력에 호소해서라도 목적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63) 谷壽夫, 앞의 책, 82-83쪽.

64) 물론 전부가 개전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육군부내에 있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러시아와 전쟁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고급장교 이상의 군인 사이에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井口文書及び解題1』, 『法學研究』 26권 1호, 89-90쪽).

65) 參謀本部, 『明治三十七, 八年秘密日露戰史』, 巖南堂書店, 1977, 26-27쪽.

된다. 이것을 위한 피아의 전력 관계는 시베리아 철도의 미완성, 영일동맹의 존립, 청국민의 적개심 등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 좋은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결코 다시 얻지 못할 것이다.⁶⁶⁾

이무치 부장은 만주를 점거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철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정부차원의 외교적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외교적 협상이 실패로 끝났을 때에는 무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금이야말로 바로 전쟁에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러시아군이 만주로부터 철병하지 않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력상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는 시한적인 조건을 붙임으로써 단순한 주전론이 아니라 조기개전론(早期開戰論)을 주장했다.

부장들의 강경론을 제지한 것은 다름 아닌 오야마 참모총장이었다. 개전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참모본부가 아니라 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원로이자 정치경륜이 깊은 참모총장은 개전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본부가 앞장서서 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5월에 천황에게 올린 의견서에서도 군사전략적 견해만을 밝혔지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참모본부의 중론은 개전론으로 크게 기울었다. 군사전략에 있어서 현재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만주에 있어서 러시아의 투자가 확대되고 군사시설이 구축되면 전략적 입지가 역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참모본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군사전략 담당자들이 대러시아 조기개전론으로 기울게 된 배경에는 시베리아 철도라는 변수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베리아의 보급선이 참모본부 요원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⁷⁾ 만약 동서교통로가 완성된다면 유럽에 보유하고 있는 러

66) 陸軍省(編), 앞의 책, 1257쪽.

67) 井口 부장의 러·일간의 전력평가에 있어서도 시베리아 철도가 최대의 변수로 작용하고

시아의 군사력이 곧바로 동아시아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구치 부장도 시베리아 철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

(전략) [러시아와 일본의 전력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및 만주철도를 개수해서 해마다 그 완성도를 높여감에 따라 러시아에 유리하게 된다. 이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육군의 집중속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육군을 수송하는 선박의 수송능력이 앞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일본 육군의 집중속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과 우리의 전력 차이는 증대하게 되어 결국 따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⁶⁸⁾

이처럼 시베리아 철도는 러·일간에 존재하는 절대군비의 엄청난 불균형을 동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재현시키는 매체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이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이게 된다면, 외교협상만으로 러시아가 순수히 만주로부터 철병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6. 참모본부의 만주전략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대러시아 개전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던 시기에 만주에 대한 전략적 사고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가. 이에 대해 이구치 부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만주의 점령을 끝내면 그 독수(毒手)는 요하와 압록강의 경

있었다(谷壽夫, 앞의 책, 36쪽).

68) 위의 책, 36쪽.

계선에 머물지 않고 동쪽으로는 나아가 한국을 찌르고 서쪽으로는 청국의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때문에 러시아가 만주에서 현상을 유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만주 그 자체를 취하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동시에 조선을 그들의 독수에 맡기는 것이니, 조선이 한번 그들의 세력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조선해협의 제해권은 물론 동해와 황해의 제해권은 전적으로 러시아가 독점하게 되니, 일본제국은 고도(孤島)에 갇혀서 다리를 뺏을 곳 없이 러시아가 원하는 바대로 그 명에 따르고, 대마도나 북해도와 같이 제국에 속한 주요한 섬도 그들이 원한다면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없는 비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⁶⁹⁾

이구치 부장은 러시아의 끊임없는 팽창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만주의 점령을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때문에 증폭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의 팽창으로 일본의 도서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지만, 만주가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면 한국도 그 세력하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한 현실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고자 한다면 러시아의 만주점령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즉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한국지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전쟁밖에는 없었다. 즉 이구치의 전략적 사고에 의하면 만주와 한국은 전략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세트였다.

참모본부 내에서 아직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러시아통으로 알려진 다나카 참모본부 부원도 만주전략에 있어서 한국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 육군은 영일동맹 이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가됨에 따라서 육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산도 증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

69) 陸軍省(編), 앞의 책, 1258쪽.

세적으로 운동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와 직접 대치한 그들[러시아]의 육군은 점차 우세를 더하게 되고 또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기관이 발달함에 따라서 상대적 우세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커져 마침내 피아의 전력은 크게 벌어져 우리의 군은 점차 적의 압박을 받아 결국 전장(戰場)은 만주에 있지 않고 수세적으로 조선국경을 방호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앞서 조선 국내로 공세운동을 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조선은 사실상 우리의 손을 이탈하게 되고 우세한 [일본의] 해군의 위력 또한 썩 불 길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⁷⁰⁾

다나카 소좌의 의견서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일본은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 만주를 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러시아가 우세를 점하기 전에 공세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나카는 한국만을 수세적으로 방어해서는 결코 한국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만주를 공격하지 않는 한 한국지배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적 사고는 중요한 전투가 반드시 상대의 세력권 내인 ‘압록강 이북’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다.⁷¹⁾ 당시로서는 대담한 전략적 발상이지만 러시아에 대해 만주를 주작전 지역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만주공세전략’은 러시아와 갈등이 고조되면서 점차로 힘을 얻어갔다.

‘만주공세전략’은 강경파의 일원인 이구치 부장도 공감하고 있었다. 만주는 러시아군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격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이구치 부장은 ‘만주공세전략’을 군사작전안에까지 반영시키고 있었다.

개전을 결심하게 되면 즉시 우리의 제11사단으로 우선 조선반도를 확실히 점령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이 달성되면 조선 서북부해안에 상륙

70) 田中義一, 『隨感錄』, 『田中義一傳記』上卷, 211-212쪽.

71) 위의 책, 212쪽.

하여 신속히 압록강의 경계를 점령해야 한다. (중략) 우리의 함대가 공을 세워 황해의 제해권을 점유하게 되면 신속한 방법으로 육군을 요동(遼東) 연안으로 수송하여 각 지점으로부터 동시에 상륙시켜 적들로부터 우세를 점하도록 피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한국 점령부대는 만주로 진입하여 (중략) 우리의 육군이 상륙을 끝내고 최초의 전투에서 적을 해안지방에서 격퇴한다면 점차로 그들을 북방으로 압박하여 요동반도에 근거를 굳히고 거기에서 청국과 조선으로의 연락을 확실히 하여 근거지와 본국 항만과의 수송을 통괄해야 한다. (중략) 따라서 하얼빈은 동청철도 선로 중에서도 동서의 연락점으로써 중요한 전략점이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점령한다면 만주의 점령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블라디보스톡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다. 때문에 하얼빈은 반드시 전진하여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⁷²⁾

이것은 이구치 부장이 6월 8일, 부장회의에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이다. 그는 한국, 요동, 하얼빈을 3단계 과정을 거쳐 점령하면 만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도 제1단계로 한국 점령이 들어가 있지만 역시 주작전지역은 만주였다. 만주는 점차 군사작전에 있어서도 주작전지역으로 굳혀지고 있었다.

참모본부에서 제시한 만주전략이 대담한 구상일 수 있고 달리 보면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일 수도 있지만, 군사전략으로써 약간의 모순점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의 목표가 만주에 근거하고 있는 러시아의 주력군을 격파하는 것임도 불구하고 전쟁수행 과정에 반드시 한국 점령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전의 방향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적의 주력에 대한 섬멸이 최우선인 근대전에 있어서 한국 점령은 불필요한 안배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목표의 분열은 전쟁의 목적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 지배이지만 목표는 한국이 아니라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의 주력군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만주공세전략’은 대러시아 주전론의 강력한 논거로서 군 내부뿐만 아니라 외교라인의

72) 谷壽夫, 앞의 책, 91-92쪽.

경직된 협상태도에도 일조하였다.

6월 8일의 참모본부 회의에서 부장들의 대러시아 강경론을 수용하지 않았던 오야마 참모총장이 같은 달 23일에 열린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는 상당히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 어전회의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등 각 원로와 테라우치 육군대신, 야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 해군대신, 가쓰라 총리대신이 배석하여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지켜야 할 정부의 입장을 재론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야마 참모총장은 러시아에 대한 육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우리 제국은 지금 러시아와 교섭하여 조선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교섭하면 반드시 병력에 호소하지 않고 해결을 볼 수 있다. 만약, 불행히 개전에 이르더라도 현재 그들의 군비가 결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군비도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하지만 그들과 우리 쪽의 전력이 아직 평형을 잃고 있지 않아 싸우기에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국가 백년의 대계를 위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이 때로 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 이 호기를 놓치면 그들의 결점은 삼사년 내에 해소될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한 근거지를 갖고 위력적으로 압박해 올 것이니 우리가 군비를 더욱 충실, 확장하더라도 도저히 그들과 균형을 이룰 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⁷³⁾

오야마 참모총장의 의견은 전력적으로 승산이 있을 때 외교적 협상을 벌여 한국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측을 재촉하는 내용이었다. 만약에 외교협상에 실패하여 전쟁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이라면 승산이 있다는 군사적 견해도 확실히 했다. 이것은 군의 전략과 작전의 책임자가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에 군사력을 동원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각료와 원로들 앞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73) 陸軍省(編), 앞의 책, 1262쪽.

할 수 있다. 군의 책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서를 통하여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도 일본에 승산이 있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이것이 최초라고 생각된다.

오야마 참모총장은 시간적인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참모본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던 대러시아 강경론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오야마 참모총장은 조건부의 조기개전론을 제시함으로써 러일협상에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속에 전쟁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참모총장의 전쟁지지 발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전회의는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 중에서 가장 강경한 대러시아 교섭원칙을 결의하였다.

- 一. 러시아가 약속을 어기고 요동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수년 동안 해결치 못했던 한국문제를 해결할 것.
- 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 한국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일부도 러시아에 양여하지 않을 것.
- 一. 이와 반대로 만주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이미 우세한 위치에 있으니 다소 러시아에 양보할 것.
- 一. 답판은 동경에서 열 것.⁷⁴⁾

이러한 원칙들은 4월의 무린암 회의에서도 대략적으로 확인된 바 있었다. 단지 한국에 대해서 “그 일부”도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는 부분이 이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써 러·일간에 한반도의 어느 부분을 경계로 양국의 세력범위를 설정하는 타협안은 애기조차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만주에 대해서는 “다소 러시아에 양보”할 수 있다고 타협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고무라를 중심으로 한 외교라인은 러시아군의 만주 철수를 마지막까지 고집하였다.⁷⁵⁾ 러시아에 있어서도 궁중 내의 강경파가 외교의

74) 위의 책, 1264쪽(『公爵桂太郎傳』 참조).

75) 당시의 小村 외상은 러일협상의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듯 하다. “이처럼 러시아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러일협상의 외교적 타결 가능성 매우 희박해졌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때부터 진행된 러일협상은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평행선을 그리며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7. 맺 음 말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한국의 식민지화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수상이 국회의 개설연설에서 밝힐 만큼 공식적이고 명확한 것이었다. 청일전쟁은 한국침략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일 뿐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으로 전리품을 빼앗기고 한국에서의 주도권도 상실한 일본이 선택한 팽창의 새로운 논리는 북수남진론이었다. 한국과 대륙을 향한 전통적인 팽창논리가 러시아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자 식민지 대만을 중심으로 남진론이 등장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대안에 불과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의화단사건의 와중에서 하문항을 기습적으로 점령하고자 했으나 열강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철저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자 한국 지배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러시아와의 현안들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일본은 러시아와 타협하기보다는 영국과 손잡

측의 내부사정을 고무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의 영토보존'이라는 조건 하나만 어떤 경우든지 달아두면 러시아는 이 협상을 차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고무라는 다른 내용에서 양보하더라도 만주에 관한 영토보존과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조약상의 권리옹호로서 언제든지 붙여 두었던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담판을 타결짓기 위해 양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 역시 사람을 보고 나서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고무라식 외교전술의 발현이었던 것이다”(『魂の外交』, 287-288쪽).

고 러시아에 대결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영일동맹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산물이었다.

이제 일본에게 남겨진 과제는 한국을 독점하기 위해서 만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이렇게 등장한 만주문제는 러일전쟁까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한국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었다. 그런 점에서 만주문제와 한국문제는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의화단사건 당시에는 만주와 한국을 교환하자는 의견, 아니면 한국을 러시아와 양분하여 나누어 갖자는 제안 등 다양한 정책적 구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영일동맹이 체결되면서 러시아와 대립구도가 명확해지자 일본 육군도 만주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군사전략적 검토를 시작했다. 물론 중심은 참모본부였고 그 가운데서도 중견장교들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육군의 만주전략은 러시아가 러청만주환부조약에 따라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음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다가 1903년 5월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주장하는 참모본부의 강경론자들에 의해 공세적인 만주전략으로 정리되었다. 즉, 러시아와 개전할 경우 만주는 주작전지역이며 일본군은 만주에 주둔한 러시아의 주력을 목표로 초기에 집중하여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만주공세전략이 그것이었다.

1903년 6월, 만주공세전략과 조기개전론은 참모총장이 어전회의에서 주장할 만큼 육군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강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논리는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논거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육군이 전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아니지만 육군의 전략적 판단과 주장들은 일본 정부가 전쟁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은 틀림없다.

(원고투고일 : 2004. 3. 9, 심사완료일 : 2004. 4. 1)

주제어 : 일본, 러일전쟁, 육군, 만주, 군사전략

<ABSTRACT>

Military strategy of Japanese Army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Cho, Myung-Chul

Japan made tremendous efforts to expand their influence on Korea, even before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and its ultimate goal was to colonize Korea. Their intent was clearly uttered in public, to the extent that the prime minister gave an address regarding this in the opening speech the Sino-Japanese War was one of the ample examples which revealed their preoccupation on colonization of Korea.

After the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Japan produced a new discourse of expansion 'maintaining the North and moving into the South', as opposed to the Russian-led Triple Intervention that kept Japan from Manchuria and afflicted the hegemonic status of Japan over the Korean Peninsular. However, compared with the established ones targeted to Korea and China, this theory centering on Taiwan turned out to be a temporary alternative to the historical situation where they faced the great challenge from Russia in Manchuria. Japan tried to take Amoi port by surprise in the middle of the Boxer Rebellion, and could not succeed by dint of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Western powers.

Russian occupation of Manchuria after the Boxer Rebellion prompted Japan to take immediate action against Russia since it become a great threat in Colonizing Korea. Rather than negotiation with Russia, Japan decided to make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British empire against Russia.

At this juncture, Japan had to deal with Manchuria in order to monopolize Korea. Thus, it was important that the Manchu question was always interrelated with the Korean issue even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In this aspect, Japanese strategy of Manchuria should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n Issue.

During the Boxer Rebellion, various ideas were proposed within the central politics of Japan, such as the one on the exchange of Manchuria and Korea, or the division of Korea between Japan and Russia.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Japan and Russia was more clearly visible after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Japanese Army led by the headquarter of the Japanese army and some senior military officers launched on the specific military strategy of Manchu campaign against Russia.

The army's strategy had been more specifically discussed as Russia refused to withdraw its army from Manchuria. In May 1903, it was finally set up with an offensive line, so-called Offensive Strategy of Manchuria, brought out by the hard-liners the headquarter. It hypothesized that Manchuria, not the Korean Peninsular, should be the main theater the Japanese army decided that a kind of Blitzkrieg strategy most effective in crushing down the main force of Russian army at the beginning stage.

The offensive plan and the discourse on and immediate war against Russia were constituted as an almost official stance of the army when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proposed the plan in the imperial court. They also offered a solid ground for those who fervently argued for warfare against Russia. Even if the army did not take an officially aggressive position toward war against Russia, their proposals and plans were, I believe, the integral elements that made great impact on the final decis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Russo-Japanese War.

Key Words : Japan, Russo-Japanese War, Military, Manchuria, strategy